

차 례

감독회장 목회서신

1. 환경선교위원장 인사말
2. 생태목회연구소 소개
 - 1) 리플릿
4. 구석 구석 녹색교회 탐방 책 이미지
 - 1) 서평(권중철목사)
5. 감리회 기후위기 프로젝트
6. 전농교회 프로그램
 - 1) 동영상 주소
7. 논현교회 프로그램
 - 1) 논현교회 첨부자료
8.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자료 (예배, 기도문 중심)

기후위기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감독회장 이철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해마다 6월 둘째주일을 환경선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로 40번째가 되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1930년 자치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사회신경을 통해 환경과 관련한 실천적 고백을 해왔습니다. 1997년 개정된 사회신경에서도 제일 먼저 하나님의 창조세상을 책임 있게 보존하고 생태계의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환경문제가 개선되기보다 위기신호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올해 환경주일에는 감리교회의 신앙고백과 사회신경을 다시 고백하며 ‘환경을 사랑하고 보존하는 일에 솔선수범’(교리와 장정 【211】교인의 의무 ㉠항)하여 한국감리교회가 대표적인 환경교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보고는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되었습니다. 유엔 정부 간 기후변화위원회(IPCC)는 2007년 4차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기후변화가 명백한 과학적 사실이고, 인간 행위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아직 이러한 대응노력이 피부에 와 닿지 않아 환경문제에 소홀하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상황은 지구멸종이라는 심각한 위협에 처해있기에 우리가 누리는 소비중심적인 문화로는 더 이상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제 탄소에너지 줄이는 실천과 기후 위기대응이라는 환경문제는 정치인들에게 맡길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생활인들 모두의 문제입니다.

지난 2005년 26회 총회 입법의회를 통해 한국교회에서 최초로 교인의 의무조항에 환경사랑과 보존의 의무를 신설하였고, 지난해에는 각 연회에서 탄소중립선언문을 채택하고 발표하고, 정회원 연수과정도 환경을 주제로 생태계신학, 녹색교회, 환경선교 강의를 개설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5월 35회 총회 4차 감독회의에서는 연회감독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방회까지 환경선교위원회를 조직하기로 하고 지방위원장들의 모임을 통해 실천 가능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장면이 드라마틱하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하루가 지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는데 모두 일곱 차례나 반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물질세계 이전에 하나님의 기쁨이고, 좋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인간의 문명과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의 정신과 그 세계를 상실하였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창세기의 말씀은 이미 낡은 고전이 되

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편리를 위한 고안과 발명들은 오히려 세상을 망쳐놓았습니다.

발베르트 벨만은 창세기 1장을 이렇게 풍자하였습니다.

“태초에 내가 보매 모든 것이 좋고, 좋았었다. 그러나 오늘날 내가 보니 만물이 나빠질 대로 나빠졌구나.

첫째날, 내가 낮에는 해, 밤에는 달로 빛을 내게 했건만 너희는 매연으로 날을 어둡게 하고 네온과 전기조명으로 밤의 고요를 깨뜨렸도다.

둘째날, 내가 마른 땅과 수면을 가르고 물을 주어 원기를 돋우고 땅에 과일이 풍성케 하였건만, 너희는 땅에 독을 부어 개천과 호수, 그리고 바다를 오염시켰도다.

셋째날, 내가 싹을 내어 온갖 식물들이 자라도록 하였으나, 너희는 산성비로 들판의 초목들을 죽게 만들었도다.

넷째날, 또 내가 크고 작은 물고기들과 온갖 새들을 지었으나 너희는 기름을 유출하여 고기 떼의 씨를 말리고 화학약품으로 나비와 노래하는 새들을 죽이는 도다.

닷셋날, 내가 뛰고 기는 만 가지 짐승들을 지었건만 너희는 못되게도 그들을 서식지에서 내쫓고, 너희 우리 안에 가두어, 그들이 우울한 나날 속에 얼이 빠져 조롱거리가 되게 하는 도다.

엿셋날, 내가 너희 인간, 남녀들을 내 모습대로 지은 후 그 손에 모든 피조물들을 맡겼건만 너희는 무익한 청지기로 내 손이 할 일들을 망치는 도다.

이레 되는 날에는 내가 쉬면서 너희 또한 쉬도록 하였건만, 너희는 쾌락을 좇고 노래를 탐닉하며 주말을 허비하고 나아가 사물에 대한 감각마저 잃는 도다.

돌아오너라 내 백성아! 너희의 하나님 나에게로, 그리고 너희 자신에게로, 네 자손들을 기억할지니, 나의 이 대지가 너희들의 것이었던 것처럼, 너희 자손들의 것이 되어야 하리니”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자연의 생태계와 더불어 온통 파괴된 인간의 공동체적 생태계를 위해 관심 가져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은 성경에만 복음을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나무들, 꽃들, 구름들, 별들에도 기록하셨다”고 말하였습니다. 환경을 사랑하고 생태계적 생활습관을 지닌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와 가까운 생활태도를 지닌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조질서보전은 선언과 고백에만 머물러서는 안됩니다. 환경선교주일을 지키며 참회하고, 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고백과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실천사례를 나누고, 도시와 농촌 직거래 활성화 방안도 찾으며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감리회 홈페이지에 ‘한국교회 기후위기대응 매뉴얼’, ‘탄소금식 40일 실천달력’, ‘생명의 길 캠페인 영상’, ‘탄소중립을 위한 생태교회 매뉴얼’ 등 환경선교주일을 위한 풍부한 자료를 게시해 놓았습니다. 잘 활용하여 감리교회가 창조질서회복을 위한 한국교회의 모범으로 계속 자리매김 하길 기대합니다. 아펜젤러세계선교센터(구 인우학사)에 세워진 “감리교생태목회연구소”를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선교에

대한 자료와 교육 등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기후위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창조질서보존을 위해 ‘기후위기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2008년 제정된 ‘감리회 환경지킴이수칙’, 햇빛발전소 갖기 운동, 녹색교회선정시상 등 보다 적극적인 탄소중립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알의 겨자씨 안에서 천국을 보셨듯이(마 13:31),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피조물의 탄식에 귀 기울이며(롬 8:22)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섭리와 목적에 따라 환경과 생명질서 보전을 위해 살아가려는 여러분에게 은총을 베푸시길 축원합니다.

2023 환경선교주일을 맞으며

장석근 목사(환경선교위원장, 오봉교회)

우리가 만들어 내지 못하는 영양분을 만드는 작은 연두빛 풀잎과 나뭇잎이 짙어가는 오월, 작은 들판과 숲길 어디라도 산소 가득하여 싱그럽고,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주님의 녹색은총(green grace)으로 문안합니다.

감리교단은 2022년 10월 제35차 총회에서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총회와 연회 안에 기후위기에 따른 “기후특별위원회” 구성을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습니다. 2023년 5월 11일 강릉에서 열린 감독회의에서 선교국 안에 있는 환경선교위원회와 생태목회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기후특별위원회를 조직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안을 다음 실행위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결정은 존 웨슬리 회심(1738. 5. 24)만큼이나 큰 변화입니다. 기후위기와 지구 위기는 우리로 회개하게 하고(metanoia), 성서를 새롭게 읽도록 이끅니다. 이 새로운 변화를 우린 생태적 회심(ecological repentance), 또는 생태적 전환(ecological conversion)이라 부릅니다, 지금 일어나는 생태위기에 반응하여 나온 생태비평(ecological criticism), 또는 생태해석학(ecological hermeneutics)은 지구 또는 지구공동체 관점인 생태비평의 눈으로 성서 본문을 읽는 것입니다.

20여 년 전, 우리보다 이런 문제에 맞닥뜨린 호주 생태신학자이자 <지구성서(The Earth Bible) 시리즈 5권>의 편집자인 하벨(Norman C. Habel)은 본문을 읽을 때 방향성, 이념, 또는 본문이나 해석자들의 초점에서 “생태정의 6원칙(Six Eco-justice Principles)”를 만들었습니다. 이 6가지 원칙으로 비평적 질문을 하며 본문을 읽습니다.

“지구는 그저 인간의 자원으로 여겨지는가?
아니면 본래의 가치를 가진 주체로 여기는가?
지구는 목소리를 가진 주체로 다뤄지는가?
아니면 착취의 대상으로 다뤄지는가?
... ..”

생태정의 6원칙(Six Ecojustice Principles)이란?

1. 본래 고유가치 원칙(The Principle of Intrinsic Worth)

온 우주와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존재는

그 자체 안에 본래 정체성과 고유가치를 지니고 있다.

2. 상호 연결 원칙(The Principle of Interconnectedness)

지구는 생존을 위하여 상호의존하고 상호연결된 생물체들의 공동체이다.

3. 목소리 원칙(The Principle of Voice)

지구는 경축할 때는 물론 불의에 대항할 때에도

그 목소리를 높힐 수 있는 주체이다.

4. 목적 원칙(The Principle of Purpose)

온 우주와 지구, 그 안에 있는 모든 존재는

역동적인 우주적 설계 안에서 한 자리로 차지하고 있고,

그 설계의 목적 가운데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5. 상호 보호 관리직 원칙(The Principle of Mutual Custodianship)

지구는 지구공동체의 다양성과 조화 균형을 지속하기 위하여

피차 동반자로서 상호보호 관리직을 담당해야 할 영역이지

지배를 위한 영역이 아니다.

6. 거부 저항 원칙(The Principle of Resistance)

지구와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인간의 손으로 말미암아

불의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정의를 위한 투쟁에서 인간들의 불의에 적극 거부, 저항하고 있다.

* Norman C. Habel *Reading from the Perspective of Earth*, The Earth Bible Volume One, Sheffield Academic Press, 2000. p.24 (Six Ecojustice Principles 최종수 옮김)

2023년 감리교 환경선교주일은 6월 첫째 주일이나, 둘째 주일로 지킵니다. 환경선교 위원회에서는 환경선교주일을 위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적극 활용하시고, 기후특별위원회 조직에도 많은 힘을 실어 주십시오.

※ 자료수집에 허락한 기독교환경연대, 창조와 관련한 글을 보내주신 김충연, 신익상 교수님, 여러모로 수고해주신 선교국 유흥근 부장님, 환경선교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더불어 “생태비평”에 대한 글은 스티븐 L. 메킨지, 존 켈트너 엮음, 유연희 외 옮김, 『최근의 성서비평 방법론과 그 적용』, (서울: 한국기독교연구소, 2023)의 Norman C. Habel <생태비평>(p. 77-110)을 참고했음을 알립니다.

신약성서에 나타난 자연 및 생태계 보호에 관한 소고

: 창조세계의 구원과 회복을 중심으로

김충연 교수(감리교신학대학교 신약학)

들어가면서

본 연구 자료는 기후위기, 자연 및 생태계보호와 관련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생각과 행동을 가져야 하는지 신약성서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신약성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그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데 목적(요 20:23)이 있는 그야말로 ‘신앙의 책’이다. 성서의 저자들이 이러한 목적을 기반으로 기록하였기에 성도의 믿음생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등 신앙생활이 교회 가르침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었고, 자연, 환경, 과학, 예술, 철학 등 인류의 일상과 깊은 관계가 있는 다른 주제들은 자연스럽게 신약성서의 가장 자리로 밀려나게 되었다. 교회사적으로 볼 때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내외적으로 재림의 지연, 거짓 가르침 그리고 종교적 핍박 등으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초대교회가 겪었던 문제와는 결이 다른 또 다른 심각한 문제들과 맞닥뜨려 있는데 그것 중의 하나가 바로 ‘기후위기’와 ‘생태계 보호’ 문제이다.

이 자료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환경이 얼마나 위험한지 또는 기후나 생태계의 위험이 어떤 위기에 처해있는지 등에 대하여는 서술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매스 미디어 등 여러 채널들을 통해 접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이미 환경문제는 더 이상 주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미래를 좌우하는 매우 급박하고 중차대한 문제라는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동안 간과하고 소홀히 여겼던 ‘환경문제’, ‘생태계 문제’에 대한 신약성서적 관점을 살펴보고 그 대안을 제안하려는 것이다.

본론

본 연구에 들어가면서 관심을 갖고 살펴볼 주제는 신약성서에서 바라보는 자연, 환경, 창조세계에 관한 주제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창조 세계의 회복과 구원에 대한 신약성서적 관점이다. 신약성서는 피조물인 이 세상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더 나아가 피조물의 현재 상태와 마지막 최종적인 구원의 단계에 있을 만물의 회복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주제아래 살펴볼 관련 주제어들은 세상(κόσμος), 피조물(κτίσις), 만물/만유(πάντα) 등과 같은 단어들이며, 이들의 개념과 용례 등을 통해 이 세상에 대한 창조주의 구원계획과 이것을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적 참여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만물의 근원(根源)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전 8:6). 바울은 고전 8:6에서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라고 기록하며 모든 만물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심을 선언한다. 또한 로마서에서도 바울은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다’(롬 11:36)고 선언한다. 이러한 선언은 사도행전에서도 계속된다. 바울은 루스드라인들에게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행 14:15)고 설교하고, 아테네 시민들에게도 ‘우주(κόσμος)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다’고 선언한다(행 17:24). 이렇듯 모든 피조물은 한분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히 3:4),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으심을 받고(계 4:11), 하나님을 위하여 라는 공동의 목적을 갖고 존재한다.

만물은 또한 예수로부터 왔다(요 1:3). 요한복음 1:3에서 저자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선언한다. 또한 바울도 고전 8:6에서 역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라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골 1:16에서도 보이는 만물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음을 밝힌다. 이처럼 모든 만물의 근원은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러한 사실 만으로도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피조세계를 보존하고 지켜야할 책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환경보호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행동이다.

인간역시 피조물의 일부이다(고전 8:6). 바울에게 있어서 피조물(κτίσις)은 인류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구약성서 창세기 1장의 ‘정복하라, 다스리라’(1:28)는 내용에 대한 과도한 해석으로 인해 인간은 피조물의 일원이 아니라 피조물의 지배자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인간은 피조물의 관리인 또는 청지기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인간 역시 피조물의 한 부분임을 잊고 마치 모든 피조물들 중에 인간만이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는 인간중심적인 잘못된 생각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왜곡된 지배자 또는 관리인 관점의 시각에서 인간은 이제 겸손한 피조물의 관점으로 내려와야 한다. 바울은 고전 8:6에서 ‘우리에게 아버지는 한분이시며, 그로부터 만물이 나왔으며,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εις αὐτὸν τὰ πάντα.)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존재한다’고 선언한다. 이것은 모든 자연 및 피조물의 세계와 인간은 한 아버지 아래에서 서로 동등하며,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공통된 목적을 갖고 있음을 말한다. 즉 인간을 포함하여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그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위하여(εις αὐτὸν τὰ πάντα.)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은 로마서 11:36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εἰς αὐτὸν τὰ πάντα.) 있습니다”에서도 한 번 더 강조된다. 이렇듯 모든 피조물은 하나이다.

피조물이 고통 받고 있다(롬 8:19-22). 생태파괴, 환경오염 등으로 세계 곳곳에서는 이에 따른 기후변화로 심각한 재난을 겪고 있다. 북극과 남극의 온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한다. 사도 바울의 말대로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하며 탄식하고 있다’(롬 8:21). 바울은 모든 피조물이 인간 타락의 결과로 모두 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선언한다(롬 8:20,22).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롬 8:19). 최초의 인간인 아담의 죄악으로 인해 다른 피조물들이 고통을 받았던 것처럼, 여전히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지구마을 곳곳에서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있다. 우리 인간이 이미 얼마나 많은 자연을 파괴했으며, 황폐하게 만들고 있는지는 이미 잘 알고 있는 바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누가 돌볼 것인가? 이들이 기다리고 간절히 바라는 것은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인간들(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¹⁾ 바울에 의하면 아담의 범죄이후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 중에 있으며, 이러한 고통이 멈추는 것은 인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할 때인 것이다. 그것은 바로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의 존재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것은 환경보호가 단순히 지역 사회의 임무가 아니라 이것 자체가 복음 선포이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자연스러운 결과임을 말한다.

하나님은 세상(κόσμος)을 사랑하신다(요 3:16) 우리는 습관적으로 인간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인간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는데 익숙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당연히 인간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르친다. 필자도 여러 번 여기서 세상은 당연히 인간이라고 설교하는 것을 들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 주셨지 그럼 누구겠냐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헬라적 의미에서 ‘세상(κόσμος)’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세상 외에 ‘질서’, ‘천지만물’, ‘우주’, ‘만유’등의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신약성서에서도 삼라만상, 세상, 지구, 땅, 인간의 거주지등의 의미로 사용되며, 요한복음에서는 하늘의 반대 개념으로의 땅, 지구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²⁾ 이것은 다른 말로 ‘피조물의 총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³⁾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심은 “세상을 향한 우주적인 구원의 의지를 천명하고 있는 것”⁴⁾이다. 즉 세상은 단순히 인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며, 지구 위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을 가리키는 것이며, 예수를 통한 구원 사건역시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다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예수는 세상의 구주이시며(4:42),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해 존재하신다(6:51). 이처럼 하나님의 최종형태의 구원은 만물이 새로워지는

1) 제임스 던, 『로마서』, WBC vol. 38A. (서울: 솔로몬, 2003), 784.

2) W. Bauer, WzNT. (Berlin.New York: de Gruyter, 1988), 907-908.

3) 임진수, “요한복음의 세상이해” 『신학과 세계』 47(2003), 176-177.

4) 임진수, “요한복음의 세상이해”, 179-180.

것이다(계 21:5).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상의 구원에 대해 사랑을 갖고 계시다면, 우리 인간 또한 세상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스도인들이 환경과 자연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그 분이 창조하신 것에 대한 사랑을 위하여 이다.

결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며, 모두 하나님의 훌륭한 작품들이다. 인간은 모든 피조물들 중 더 이상 무소불위의 존재로서 포획하고 남용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 또한 여타 피조물들과 같은 피조물 중 하나임을 인식하고 다른 피조물들과 상생하는 자리로 내려와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얼마나 인간의 이러한 무분별한 남획과 개발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가? 우리는 사망에서 인간의 죄로 인한 피조물의 고통을 직접 목격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고통당하는 피조물의 영향으로 인간들(특히 취약지구에 살고 있는) 또한 고통을 겪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작품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우리는 복음 전파등 종교적인 일과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행동에서도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빛을 보게 하여,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최종 구원의 형태는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 온 세상이다. 모든 고통과 눈물이 사라지고, 만물이 새로워지는 그 곳,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때인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참여해야 한다.

생태적 삶을 열어가는 교회들

권종철 목사(예수마을교회)

〈구석구석 녹색교회 탐방 : 생태적 삶을 열어가는 교회들〉, 감리교생태목회연구소, 2023

이 책은 기후변화의 징조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위기 앞에서 이 시대를 위한 교회의 사명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감리교생태목회연구소⁵⁾(2022년 창립)에서 출간한 첫 번째 책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교회가 직면하게 된 여러 도전 중 특히 생태계 위기에 교회적, 목회적으로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목회 패러다임을 어떻게 새롭게 구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 속에서 기획되었다고 한다.



이 책에는 성서를 토대로 한 신앙,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계를 향한 사랑, 그 자연환경을 지키려는 헌신과 노력, 그리고 생태위기에 빠져 있는 지구를 살리고자 하는 소망과 실천사례들이 담겨 있다. 그래서 어떻게 창조질서를 보존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지혜와 해답들을 얻게 될 것이며, 그런 면에서 구체적인 목회실천의 사례들을 담고 있는 이 책은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보존하는 거룩한 사명자의 길로 독자들을 초대하는 ‘그린 초대장’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추천의 글에서 언급하고 있다.

STORY 1. ESG와 교회

1) 지속가능한 ESG 경영과 한국교회의 역할(손화철)

최근 경영계와 학계의 키워드인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ety), 지배구조(Governance)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든 용어인데, 아직 그로 인해 생긴 진정한 변화는 미미하다고 말하면서, 그런 변화는 소비자가 꾸준하고 일관적인 소비 패턴을 보일 때 비로소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에 교회의 역할이 있다고 강조한다.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기업을 멀리하는 등 ESG 경영을 강제하는 소비에 앞장서야 하고, 동일한 원리가 교회 스스로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5) <생태목회연구소>는 오랜 기간 환경선교에 힘써 온 분들이 모여 기후 위기 시대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작년 2월 창립이사회를 통해 출범되었습니다. 이후 정회원 연수교육을 실행하고, 본부 환경선교위원회와 함께 연회와 총회에 탄소중립 로드맵을 제안하고, 기후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여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등 여러 활동과 사업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수련목, 준회원, 정회원 목회자 연수교육 시 반드시 생태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필치기로 창조세계의 청지기직 수행을 돕고자 합니다.

2) 기후위기 시대에 녹색교회를 꿈꾸다(양재성)

오늘날 인류는 환경재앙에 직면해 있다고 하면서, 인류는 경제성장이라는 탐욕을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생명살림의 길로 돌아설 것인지를 기로에 서 있다고 말한다. 문제는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이며, 이 문제는 지구 생존의 문제요 신앙의 문제라고 말한다. 오늘날 교회가 구원신앙만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창조신앙은 전혀 언급하지 못하였는데, 이것이 교회가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내몰린 이유가 되었다고 말한다. 그래서 지금은 창조신앙에 대하여 눈을 뜰 때이며, 기후위기로 인해 지구 공동체가 위협을 받고 있어 전 세계 교회가 새로운 선교에 부름 받았는데, 바로 환경선교라고 강조한다. 이 일을 위해 녹색교회를 제안한다. 녹색교회는 하나님의 창조질서 보전을 위해 일하는 교회로, 환경선교를 중심에 둔 교회를 말한다.

STORY 2. 초록으로 물든 교회들

- 1) 정주(定住), 늘 곁에 있다 - 농민교회(충북 음성)
- 2) 동녘에서 불어오는 바람 - 동녘교회(경기도 고양)
- 3) 흘러야 향기가 난다 - 샘터교회(부산)
- 4) 함께 할 때 성장한다 - 송악교회(충남 아산)
- 5) 동지를 내어주다 - 숨쉼교회(광주)
- 6) 예수께서 새를 보라고 하셨지요 - 오봉교회(강원도 고성)
- 7) 편안한 곳에 생명이 깃든다 - 완대교회(경남거창)
- 8) 걱정할까, 사랑할까 - 자연드림교회(충남 예산)

위의 교회들은 환경선교를 그 중심에 둔 녹색교회들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하신 우리 삶의 터전의 지속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어진 환경에 따른 생태목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교회들이다. 더러운 물이 가득한 큰 호수의 물을 한 바가 지씩이라도 퍼내려고 노력하는 교회들이며, 수레바퀴 자국 속에 갇혀 죽어가는 붕어에게 물 몇 방울을 부어주려는 교회들이라고 말한다.

“현재 나의 고백은 ‘과정’에 있는 것일 뿐입니다. 다만 지금은 창조, 생태 고백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봉교회 장석근 목사의 의미심장한 고백이다.

이 책을 접하는 많은 분들이 함께 세상을 푸르게 만들며, 지구를 살리는 일에도 연합하여 힘쓰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해 본다. 아파트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 교회는 어떻게 생태목회를 열어갈 수 있을까?

기독교대한감리회 기후위기 프로젝트

각 연회 감독 및 총무, 각 지방 감리사 및 선교부 총무, 선교국위원회 및 환경선교위원회 공동 진행

1. 취지

- 1) 오늘날 인류는 기후위기로 인한 대멸종이라는 가공할만한 위협에 처해있음.
- 2) 세계 정부는 기후위기를 심각한 시대적 과제로 받아들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 로드맵을 선언하였지만 정책을 전환하고 실천하는 의지는 턱 없이 부족함.
- 3) 국제사회 탄소세 적용, 기업들 RE100에 참여.
- 4) 가톨릭교회는 교황청을 중심으로 발 빠르게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한국 가톨릭 교회도 전면적으로 동참하고 있으며 불교도 대형 본사사찰들을 중심으로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원불교와 천도교도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음.
- 5) 한국교회와 감리교회도 탄소중립로드맵을 확정하고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함.

2. 근거

- 1) 한국 개신교 탄소중립을 선언.
 - 2022년 9월 기장과 예장통합이 총회에서 탄소중립 로드맵을 확정.
 - 감리회는 2022년 10월 제35차 총회에서 탄소중립선언, 2040년까지 감리교회가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 및 물자에 대한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탄소중립로드맵을 발표하였고, 총회와 연회 안에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구성을 만장일치로 결의함.
- 2) 감리회 교리적 선언 1조.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오직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 3) 감리회 사회신경 1조.
『우리는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 우주 만물을 책임 있게 보존하고 생태계의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

3. 총회와 연회에 기후특별위원회 결성

- 1) 총회 기후특별위원회 결성

- 감독회장, 선교국위원장, 행정기획실장, 선교국총무, 교육국총무, 평신도국총무, 사무국총무, 출판국사장, 각 연회 총무, 전국남선교회장, 전국여선교회장, 전국청장년회장, 전국교회학교연합회장, 전국청년회장, 본부환경선교위원장, 생태목회연구소장. 전문가 약간 명.

2) 연회 기후특별위원회 결성

- 감독, 총무, 연회환경위원장, 연회남선교회장, 연회여선교회장, 연회청장년연합회장, 연회청년회장. 연회교회학교연합회장. 감리사 대표. 전문가 약간 명.

4. 이렇게 활동해 보세요.

1) 탄소중립 활동 전개

- (1) 창조질서보전을 위해 매일 3분 이상 기도.
- (2) 5덜 운동 / 덜 사고, 덜 갖고, 덜 먹고, 덜 쓰고, 덜 버리기.
- (3) 전기를 아껴쓰고 멀티탭을 사용하고 실내적정온도를 유지.
- (4) 감리교 환경지킴이 수칙 실천하기.
- (5) 탄소절감을 위해 탄소헌금 봉헌.
 - 비행기 이용시 항공료의 5%. 자동차 이용시 100km당 1,000원.
 - 기념일(생일 결혼기념일 회갑 졸업 승진 등등)에 나무심기 헌금 봉헌
 - 전교인 걷기 헌금 등등
- (6) 초록가게 설립 운영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아나바다운동을 전개.
- (7) 대중교통 및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걷기.
- (8) 개인컵 이용, 육식을 줄이고 채식을 확대.

2) 녹색교회 세우기

- (1) 교회와 지방, 연회에 환경위원회를 구성.
- (2) 교회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운영.
- (3) 도농직거래 및 생명밥상운동을 전개.
- (4) 환경지도자학교 및 기후위기 세미나 운영.
- (5) 자원을 아껴 쓰고 초록가게 및 생협을 운영.
- (6) 탄소헌금 제정하기.
- (7) 환경주일을 성수하기. (매년 6월 둘째 주일)

3) 환경교육 강화

- (1) 수련목, 준회원, 정회원 연수교육에 환경선교 및 생태영성, 생태목회 교육.
- (2) 신학대학교에 생태목회 과목 신설.

(3) 총회 및 연회 수련회 및 세미나, 남녀선교회 계삭회에 환경선교 교육 강화.

5. 감리회 환경지킴이 수칙 (2008년 제정)

한 처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내셨다. 자연환경은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의해 움직이며 창조의 신비를 담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탐욕은 자연환경을 파괴하여 창조질서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지구생명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한 국감리교회는 하나님의 창조질서 보전을 위해 아래와 같이 다짐한다.

- 첫째, 우리는 창조질서 보전을 위해 하루에 3분 이상 기도한다.
- 둘째, 우리는 대중교통과 자전거를 이용한다.
- 셋째, 우리는 유기농산물로 생명밥상을 차리고 음식물을 남기지 않는다.
- 넷째, 우리는 물을 아끼고 받아쓰며 가급적 재사용한다.
- 다섯째, 우리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조명과 전열기기를 사용하고
실내적정온도(여름/24-28도, 겨울/18-22도)를 준수한다.
- 여섯째, 우리는 계획구매하고 장바구니를 사용한다.
- 일곱째, 우리는 모아서 빨래하고 천연세제를 사용한다.
- 여덟째, 우리는 자원을 재활용하고 중고품 이용을 생활화한다.
- 아홉째, 우리는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 열번째, 우리는 쓰레기를 만들지 않고 주변을 깨끗이 한다.

6. 감리교회 햇빛 선교 / 창조세계의 창문 달기

- 1) 감리회 햇빛 발전소 갖기 운동 전개.
 - (1) 감리교도 1인 1kw 갖기 운동 전개
 - (2) 한 가정, 한 교회 당 3kw 이상 갖기 운동 전개
- 2) 1 차년 사업 / 2023년 1월~12월
 - (1) 연회별로 사업 진행 / 지방 단위로 햇빛발전소 2개 이상 건설.
 - (2) 비전교회 햇빛발전지원 / 연회 차원에서 연 5개 이상 중대형교회가 비전교회에 햇빛발전소 건설을 지원. (연회 상황에 따라 수량 조절)
 - (3) 1KW 건설 단가 약 150만원. (3kw. 400만원 정도)
 - (4) 자가발전은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할 수도 있음. (국가 보조시 150에서 180만원)
 - (5) 감리회햇빛조합 컨설팅 진행 / 견적서, 현장 방문, 사업계약, 사업 진행, 준공.
 - (6) 준공 감사예배. 기독교 언론에 공지하여 홍보할 수 있음.

3) 2 차년 사업 / 2024년 1월~12월

- (1) 연회별로 사업 진행 / 지방 단위로 5개 이상 건설.
- (2) 비전교회 햇빛발전지원 / 연회 차원에서 연 10개 이상 중대형교회가 비전교회에 햇빛발전소 건설을 지원. (연회 상황에 따라 수량 조절)

4) 재원 마련

- (1) 탄소헌금 / 감리회 전 교회에 탄소헌금 제도를 도입. 지방별로 결의하여 진행할 수 있음. 비행기 이용시 항공료의 5%. 자동차 이용시 100km당 1,000원.
- (2) 산소헌금 / 걷기 등 자연 사랑을 실천하며 헌금. 기념일 헌금.
- (3) 본부나 연회 / 본부 부담금. 부담금의 일부사용.
- (4) 자립교회의 지원. / 중국교회, 전농교회.
- (5) 탄소헌금으로 지원 / 앱을 만들어 운영.

5) 기준 예시

- (1) 3kw 설치하려면 400만원 소요.
- (2) 10%인 40만원은 해당 교회가 부담.
- (3) 30%인 120만원은 연회나 지방이 지원.
- (4) 60%인 240만원은 탄소헌금이나 자립교회가 지원.

7. 기대효과

- 1) 시대적 과제인 환경문제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실행.
- 2) 환경선교는 창조세계의 청지기직을 수행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
- 3) 인류의 가장 위협적 요소에 대응함으로 사회적 책무를 수행.
- 4) 교회의 이미지 갱신으로 미래선교 기반 형성.

8. 환경연회, 환경총회 개최 제안

- 1) 2024년 4월 연회를 환경연회로 2024년 10월 총회를 환경총회로 개최할 것을 제안.
 - (1)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환경 연회를 개최.
 - (2) 연회 자료집은 최소화하고 재생용지 사용.
 - (3) 생태 예배문. 환경설교. 환경기도문. 환경영상을 제공.
 - (4) 초록장터를 운영.
 - (5) 환경강연회를 개최.
 - (6) 환경경연대회 및 공모사업을 진행.

- 생태 그리기. 생태 글짓기. 생태 동화. 환경 노래. 환경영상.
- 한 달 전부터 개 교회별로 진행하여 입선작품은 연회장소에 전시.
- (7) 대중교통 이용하고 생명밥상 빈그릇 운동을 전개.
- (8) 탄소발생부담금으로 탄소헌금 봉헌.
 - 비행기 이용시 항공료의 5%. 자동차 이용시 100km당 1,000원
- (9) 연회 차원에서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추진.
 - 각 지방별로 연 2개 이상을 설치 운영.
 - 자립교회에서 비전교회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 지원.
 - 감리교도 1인 1kw 갖기 운동 전개
 - 1감리교회 3kw 이상 갖기 운동 전개

9. 실행하기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긴급하게 시대의 과제를 풀어가야 한다. 감리회 목회자와 감리회 신도들은 기후위기에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실현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자.

- 1) 감독회의에서 총회 결의사항인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조직 확인.
- 2) 총회 및 연회 기후특별위원회 결성.
- 3) 2023년 입법의회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 4) 2024년 연회, 2024년 총회 환경연회, 환경총회로 개최 결의.
- 5) 2030년까지 탄소 50% 감축, 에너지 전환 및 흡수원 50% 확대
- 6) 2040년까지 탄소 100% 감축, 에너지 전환 및 흡수원 100% 확대
- 7) 준회원 영성 교육, 정회원 연수교육, 신학교 교육, 평신도 연수교육 등 총회와 연회 교육에 반드시 환경선교 및 생태목회 강의를 신설

은총의 숲 전농교회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환경 목회 프로그램, 만보 걷기와 햇빛발전소 건립, 탄소금식

1. 취지

- 기후위기로 인한 환경 문제의 심각성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음
-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신앙 실천 활동이 필요함
- 전교인 만보 걷기와 탄소금식운동은
신앙생활의 상징성을 깊이 내재하고 있어 교회에서 이를 시행하기에 매우 용이함
- 이 운동과 연계하여 농촌교회에 햇빛발전소 건립 운동을 펼치는 것은
녹색교회 운동의 구체성과 동력을 제공해 줄 것임

2. 표어 및 성구

‘기후 위기의 증인, 전도자가 되자!’(행1:8)

3. 프로그램 내용

1. 전교인 만보 걷기 (탄소제로를 향한 한걸음 또 한걸음)

1) 만보걷기의 신앙적 의미:

- 걷기는 개 교회에 최적화된 녹색 영성운동이다.
- 걷기는 기도운동이다 (걷기기도)
- 걷기는 친교운동이다 (자유로운 그룹핑)
- 걷기는 건강운동이다 (건강증진)
- 걷기는 탄소절감운동이다 (걷기운동은 자가용이용 자제와 대중교통 이용을 증진함)
- 걷기는 생활절제운동이다 (소비활동을 몸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 안으로 한정 짓게 인도함)
- 걷기는 녹색신앙운동의 대문이다 (구체적 실천으로 녹색신앙의 자부심을 갖게 함)

6) 서울연회 동대문지방 이광섭 목사 시무.

2) 만보걷기 운동을 위한 도구

- 전농교회의 경우 커뮤니티 조직이 가능한 걷기 어플을 사용한다.
 - 소그룹 커뮤니티 50개, 대그룹 커뮤니티 1개.
 - 소그룹 커뮤니티는 속회와 교회학교, 교역자 그룹등
 - 속장은 매주 자기 속회의 걸음수를 지역장에게, 지역장은 교회 사무실에 보고하여 집계

3) 걷기 운동의 목표와 내용

- 만보걷기를 통해 환경위기 상황을 개선하는 구체적 실천내용과 연계한다.
- 이를 위해 전농교회는 환경선교예산을 세워놓았다 (연간 1천만원)
- 방법은 1만 걸음을 걸을때마다 전농교회 환경부는 100원씩 환경선교기금을 적립한다.
- 동시에 교인들에게는 매칭펀드 개념으로 환경선교기금에 참여토록 권면한다.
- 봄, 가을 전교인 걷기대회 개최하여 더 많은 교인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한다.

■ 만보 걷기운동 결과

- 2021년 650만원 선교기금 조성
 - ➡ 보루네오 마나빼우스교회 햇빛발전소 건립 (제1호 햇빛발전소)
- 2022년 620만원 선교기금 조성
 - ➡ 원주 손곡교회 햇빛발전소 건립 (제2호 햇빛발전소)

4) 서울연회의 농촌교회 햇빛발전소 건립운동을 제안한다.

■ 100개 농촌교회에 햇빛발전소 건립하기

- 3Kw 햇빛발전소 건립하면 농촌교회의 일상 전기료 해소
- 3Kw 햇빛발전소 건립운동 통해 농촌교회와 진정어린 선교 파트너십 형성
- 3Kw 햇빛발전소 건립비용 ➡ 약 400만원
- 개교회에서 3kw 햇빛발전소 건립하기 운동 참여

■ 서울연회 추진 계획안

- ➡ 2023년 / 50교회
- ➡ 2024년 / 50교회 (총100교회)

■ 농촌교회 햇빛발전소 단계별 건립 추진안

➡녹색신앙실천운동 전개(탄보걷기, 탄소금식헌금, 녹색(환경)바자회 개최등) ➡ 기금 확보

➡농촌교회 선정 ➡햇빛발전소 건립 완성 ➡지속적인 선교 협력

2. 40일 탄소금식 운동

1) 40일 탄소금식 운동의 신앙적 의미

■ 금식과 절제는 기독교신앙에서 으뜸가는 신앙의 덕목이다.

• 탄소금식은 경건의 상상력을 불러일으킨다.

• 금식이란 경건용어와 탄소배출이란 환경용어를 결합함으로써 기후위기와 신앙을 잘 연결한다.

• 탄소금식을 통해 고통받는 생태계를 들여다보고 환경파괴의 현실에 동참하는 프로그램이다.

2) 탄소금식 운동의 진행방법

• 탄소금식운동은 신앙고백운동이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운동은 신앙고백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 탄소금식운동은 최대한 많은 교인들이 참여하도록 디자인하고 도와야 한다.

①탄소금식은 혼자보다는 두세명 이상, 소그룹으로 수행해나가도록 하자.

➡속회나 선교회별, 혹은 지역별 소그룹을 조성하자.

②탄소금식을 진행하는 가장 좋은 방안은 ‘40일간의 탄소 금식 달력’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실천하면서 영성훈련일기를 써보도록 하자.

➡소그룹원 사이에 실천과 묵상들을 나누도록 하자.

③탄소금식이 끝나면 그간의 진행사항과 경험들을 잘 나누고 갈무리하자.

④탄소금식을 통하여 환경전도를 시도해보자.

➡탄소금식이나 기후위기 문제를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소개하고 나누자.

주님들의 상당한 호응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전도는 우리 시대의 복음전도의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

3) '탄소금식'을 위한 실제적인 자료

- 40일 탄소금식 자료는 [〈기독교환경운동센터 살림〉](#) 링크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QR로 접속하시면
전농교회 탄소헌금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논현교회 탄소중립 생활실천 선도사업 자료 안내

계기

본 교회는 작년부터 인천녹색환경연합과 연계하여 소래습지생태공원 청소(연 2회), 노인대학 환경특강(연 2~4회)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인대학 환경특강 강사로 왔던 이해란 팀장(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 인천시청으로부터 탄소중립 생활실천 선도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담당자가 되어 본 교회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여 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 취지

본 사업은 인천 내 생활공동체(아파트, 유아보육시설, 종교시설, 섬)와 인천시청, NGO 단체와 활동가 등의 거버넌스를 통하여 탄소중립 생활실천을 선도해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인천시청에서는 재원을, NGO단체에서는 행정지원을, 각 공동체마다 전담 활동가가 배정되어 활동가 양성을 겸하고 있으며 공동체에서는 실제로 사업을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인천시에서는 아파트 위주로 선정했던 다른 지방자치단체들과 달리 유아보육시설, 종교시설, 섬 등의 공동체를 선발하여 여러 기관과 공동체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

본 교회는 기존에 벌여왔던 환경선교 사업에 더하여 성도들을 대상으로 매달 2가지 이상 추가되는 탄소중립 인식개선 캠페인을 통하여 성도들 개인의 삶 속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을 확대해갈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환경선교주일을 맞이하여 6/10(토) 소래습지생태공원 청소, 6/11(주일) 환경선교주일로 지킬 예정입니다. 환경선교주일에는 에어컨을 켜지 않는 주일로 지키기 위해 목회자들도 가운 대신 단정하되 시원한 차림으로, 성도들도 가벼운 옷차림으로 예배를 드릴 예정이며, 화장실에서 소모되는 핸드타월을 줄이기 위해 전 교인에게 핸드타월 대용으로 손수건을 선물할 예정입니다.

본 교회는 올해 해당 사업으로 시청으로부터 650만원 가량을 지원받을 예정이며, 3년 동안 본 사업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은 첨부해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7) 중부연회 남동서지방 권영규 목사 시무.

논현교회 「탄소중립 생활 실천 선도사업」 사업계획서

□ 참여공동체 소개

- 1947년 창립한 본 교회는 ‘세상을 품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교회’를 표어로 삼고 재적 2,500여명, 입교인 1,496명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 본 교회는 무료급식, 노인대학, 작은도서관 등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를 보전하기 위해 몽골 은총의 숲 조성, 녹색가게 운영, 사순절 탄소급식 등의 사업에 동참해왔습니다.

□ 참여공동체 추진 방향

- 주말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들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캠페인을 벌여 각자의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탄소 발생을 절감한다.
- 환경보호교육 및 실천행사를 통해 탄소중립 인식개선에 이바지한다.
- 생활실천 프로그램을 통해 교회 건물(지하 1층, 지상 4층) 이용 목적의 탄소 발생을 절감한다.

□ 탄소중립 생활 실천 프로그램 운영계획

- ※ 운영지침 25~27p 탄소중립 생활 실천 프로그램 목록 및 부록(탄소중립 생활 실천 프로그램 가이드) 참고하여 참여공동체 현황에 맞는 유형별 운영계획 작성

(1) 인식개선 프로그램

- 공통
 - 탄소중립 인식게시판 운영
 - 탄소중립 가족과 함께 실천 SNS 업로드 이벤트
 - 탄소중립 관련 퀴즈 맞추기 이벤트
 - 친환경 녹색휴가 캠페인
 - 여름철 쿨맵시 캠페인
 - 미니멀라이프 캠페인
- 에너지
 - 건강계단 지정 운영

- 가정 태양광 발전소 캠페인
- 그린 에너지 캠페인
- 녹색서재 캠페인
- 대기전력 차단 캠페인

○ 소비

- 가정에서 텃밭 채소 기르기 캠페인
-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 수송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캠페인

○ 자원순환

- 집에 있는 텀블러 찾기 캠페인
- 올바른 분리배출 캠페인

○ 흡수원

- 노인대학 환경특강

(2) 생활실천 프로그램

○ 에너지

- 동절기 적정온도 유지하기
- 하절기 적정온도 유지하기
- 환경선교주일 맞이 에너지 절반 쓰기
- 에어컨 필터 청소하기
- 승강기 전등 조도 조절하기

○ 소비

- 교회학교 간식 직접 만들어 먹기

○ 수송

- 교회오는 날, 카풀하는 날

○ 자원순환

- 개인 손수건 사용하기
- 청년부 종이 주보 온라인으로 전환
- 종이 요람 온라인으로 전환
- 녹색가게(중고물품장터) 운영

○ 흡수원

- 소래갯골생태공원 청소(연 2회)

□ 유사사업 실적/전년도 실적

○ 사순절 탄소금식 캠페인(2021년도)

○ 몽골 은총의 숲 조성사업

○ 녹색가게(중고물품장터) 운영

○ 거리청소

○ 환경을 주제로 1년 목회계획 운영(2014년)도

- 녹색가게 활성화
- 생활협동조합 설립
- 몽골 사막화 방지 조림사업
- 아프리카 마을 우물 파주기
- 생활 속에서 환경선교 구현(매달 환경 캠페인)
- 교회학교가 앞장서는 음식물쓰레기 제로 운동

□ 소요예산

○ 참여공동체 지원금

일정	사업내용	세부 추진내용	소요예산
5월	탄소중립 게시판 설치 및 캠페인	게시판 설치 인쇄비 5만원	200,000원
		탄소중립 관련 퀴즈 맞추기 이벤트 홍보비 10만원(20명, 5천원 기프티콘)	100,000원
		분리수거 철저 운영	30,000원
		청년부 후보 온라인 전환 (사무용품)	300,000원
	에어컨 관련	동·하절기 적정온도 홍보비	120,000원
6월	환경의 날 (환경선교주일)	탄소중립 가족과 함께 실천 SNS 업로드 이벤트 홍보비 15만원(시상 3가정, 각 5만원)	150,000원
		개인 손수건 사용 인쇄비 1,000,000원	1,000,000원
		소래 갯골 청소	400,000원
5월 ~ 11월	노인 대학 생태교육	노인대학 환경특강 재료비 2회 각 20만원 인건비 각 16만원(2인)	720,000원
	수제간식	교회학교 간식 직접 만들어 먹기	500,000원
상시	활동가 인건비 (캠페인 운영)	4~12월 짝수달 2회 / 홀수달 1회 총 14회 2인 각 10만원	2,800,000원
총 계			6,320,000원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교인들의 탄소중립 인식개선 및 생활 실천 참여도 증대
- 절약 정신이 투철한 노인 세대 대상 교육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 기대
- 다음 세대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탄소중립 세대 양성
- 교회 건물 이용을 위한 탄소 발생 절감 및 탄소중립 문화 형성